현장시선

장 태 범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장

제주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제2공항 반드시 추진돼야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2시간의 비행거리에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국내 외 도시가 다수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북방의 여러 나라들과 중거리 항공 노선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섬이라는 특성상 원활한 항공교통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제주도의 밝은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현 제주공항은 지속적인 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용 능력을 초과해 안전하면서 여유롭고 쾌적한 공항 이용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은 이렇게 극한적 포화상태에 이른 현 제주공항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며, 미래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수사회기반시설이다.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건설 기간 및 향후 공항 운영을 통한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하다. 생산 유발효과 5조 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4000억원, 5만441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제주 남부지역(서귀포) 접근성 개선 및 취항 항공편 증가, 항공사 간 경쟁을 통한 항공권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부지역에 청장년층 입구 유입 및 제주 도정 주도의 제주 제2공항 주변 지역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제주 동부지역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단체는 '모든 개발 사업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자 해약'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5년 동안 여러 의혹 제기를 하며 도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더불어 ADPi가 제시한 권고 사항만을 가지고 현 제주공항 앞바다를 메워 평행활주로 추가 및 보조활주로를 활용하자는 등의 타당성이 부족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하더라도 연간 4000만명 이상의 장래 수요 처리가 어렵고, 대규모 해양매립 등 환경 훼손 문제 및 제주의 악기상·공항시설 한계·안전 제도상 한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조사표본 선정과 설문 문항 등의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사실상 이미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결정하게 된다면 이미 곪을 대로 곪아버린 기존 갈등에 새로운 갈등을 양산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민과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항시설 확충은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국제관광휴양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다른 어떤 SOC 국책사업보다 충실하고 면밀하게 검토·보완해나가며 도민 민원과 우려 사항에 대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책사업을 지연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제주 제2공항을 제대로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제주 제2공항이 친환경·최첨단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하나 된 제주를 위해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한다.

열린마당

우리들의 근무 변화를 통한 워라벨

조 기 열
제주개발공사 생산3팀

제주도 개발공사에서는 가족까지 챙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휴가제도는 물론 안심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가족친화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나에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근무 패턴의 변화이다. 기존 4조3교대로 근무했으나 4조2교대 근무에 대해 올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37명 중 418명이 응답 95.7%의 선호로 확정됐다.

4조3교대와 4조2교대의 실질적 차이는 '근로일과 휴일'의 차이에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다.

4조2교대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첫째로 근무 일수 감소(휴일의 보장, 출퇴근 시간 절약, 귀향용이), 둘째로 교대 횟수 감소 (교대 시간 절약, 교대로 인한 정보 Loss감소) 정도가 있다.

4조2교대 2-2-2-2(주간-휴무-야간-휴무) 근무는 12시간 근무지만 휴무일이 보장됨으로써(특히 주간-휴무-야간 근무일 경우)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늘어나 가정에 충실할 시간적 여유가 되고, 그로 인해 육아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돌 지난 아들과 유대관계를 보다 깊게 쌓을 수 있었다.

또 조원들과 같이 취미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섭섭한 부분도 풀 수 있었다. 더불어 여유시간을 통해 자기계발에 투자할 여유가 나서, 현재 직무 관련 기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다. 여담으로 월 생활비가 줄었는데 출퇴근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차량 유지비도 줄어들어 매우 만족스럽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 지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다르다"

강철남 의원 뼈있는 말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유한 것을 두고 비판.

강 의원은 19일 도정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통한 후 대통령의 꿈을 키웠다고 설명하며 "원 지사님은 다르다"고 주장.

강 의원은 "클린턴 아카소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설 때 박수를 보내는 주 시민과 지금의 제주도민들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 오은지기자

공무원 드론수색팀 운영

○…제주시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장동호회인 '드론 동호회'를 활용한 실종자 전문 수색팀을 12월부터 운영키로 해 눈길.

아동·치매노인 실종부터 산행 중 실종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며 경찰, 소방은 물론 행정도 빠른 수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시 관계자는 "활동중인 드론동호회는 적외선센서 등을 장착한 수색용 드론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수색상황시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매립장 화재대비 대응 훈련

○…서귀포시가 색달매립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오는 25일 현지에서 화재 대응 훈련을 시행.

20년 넘게 매립된 색달매립장은 폐기물의 마찰로 인한 불꽃으로 자연발화 가능성이 상존하며 매립가스가 발생하는 등 화재발생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실제 지난 8일에도 화재가 발생.

시 관계자는 "자연발화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으로 화재대비 훈련을 통해 조기 대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언급. 현영종기자

사설

제2공항 의견수렴 접점찾기 난항 겪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도민의견 수렴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언급한 제2공항 여론조사 방식과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2공항 갈등문제가 여론조사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방안으로 거론되는 여론조사에 대해 구속력 없는 참고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희 의원이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에 대한 원 지사의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 지사는 도민여론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만 국토부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차선책으로 여론조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다"며 "의사결정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없다. 참고용일 뿐"이라며 "1~2% 차이에 따라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면 국토부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존중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도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 지사는 전날 도정질문에서도 제2공항 찬·반만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의회 특위는 '현 제주공항 확장과 제2공항'을 놓고 도민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제2공항 갈등문제가 연내 해결은 고사하고 자칫 또다른 갈등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초지 불법전용, 반드시 '발본색원'하자

도내 초지 불법 전용 사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 6월 초지 불법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까지 가능한 개정된 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용 현장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초지 불법 전용은 축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막대한 물량의 월동채소 재배로 일반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제주농업의 '암적 존재'로 지탄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서귀포시가 10월 초지 7115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6필지, 110ha의 불법 전용을 적발했습니다. 8월 1차 조사서도 71필지, 78ha 적발로 서귀포 관내서만 127필지, 188ha의 불법 전용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서귀포시가 해당 초지의 소유자와 행위자에 대해 전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형국입니다. 향후 공개될 제주시 지역 사례까지 감안하면 예상을 웃도는 불법 전용 실태가 나올 전망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초지 불법 전용 759필지·461ha를 적발할 만큼 심각합니다.

문제는 올 6월 개정된 초지법 시행으로 불법전용시 원상복구 명령 조항 신설 등 강화됐음에도 초지 불법 전용 만연 조짐을 보인다는데 있습니다.

초지 불법전용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거기다 대부분 무와 배추 등 월동작물을 재배해 엄청난 물량 처리로 가격하락과 일반농가들의 판로난을 부채질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불법·편법 개발사업 현장으로 청정제주의 빼어난 초원지대 경관을 망치기도 합니다.

초지 불법 전용은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원천 봉쇄해야 마땅합니다. 제주의 초지 잠식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중산간 지대 난개발 방지와 월동작물 과잉공급·가격폭락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부 고

홍두표(前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장) 어머니 **진주진씨 수남(향년 88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8일 14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20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21일(토요일) 오전 5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01호 빈소
▶장 지: 납읍리 공동묘지

남편 홍시준
아들 홍두표 며느리 노영순(미영)
인표 고현숙
딸 홍보옥 사위 강만순
선옥 박경섭
진옥 김영준

※연락처 : 홍두표 010-8990-0864
홍인표 010-8660-5727
홍보옥 010-5575-8922
홍선옥 010-2610-6070
홍진옥 010-3331-1992

부 고

현동학(한라특수유 대표) 어머니 **동래 정씨 영자(엘리사벳·향년 76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8일 08시 10분경에 선종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20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21일(토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11월 19일)
부민장례식장 2빈소(11월 20일)
▶장례미사: 11월 21일 오전 9시 광양성당
▶장 지: 표선면 세화리 선영

남편 현성모(사도요한)
아들 현동학 며느리 이은숙
운학 고민정
딸 현경임 사위 양수철
경미 신희창
손 현일훈 외손 양혁재
용훈 연재
주은 우진
보나 신 혁

※연락처 : 현성모 010-9170-8242
현동학 010-5057-8515
현운학 010-8663-8515

부 고

김영식(낭건축사사무소 대표) 어머니 **기계유씨 순열(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8일 오전 10시 8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20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21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들 김영식 며느리 문옥순
영덕 오희순
영철 장원미
영호 고덕순
영권 김지선
딸 김영아 사위 김병택
손자 김상현 손부 고진희
동환
민성
효성
진홍
손녀 김상희 손서 이승철
동연
진경 외손자 김세종
진선 김 현

※연락처
김영식 010-2690-8585 김영아 010-2055-6081
김영덕 010-7234-8539 김영철 010-3691-8282
김영호 010-2691-6324 김영권 010-4691-3390
김병택 010-3691-3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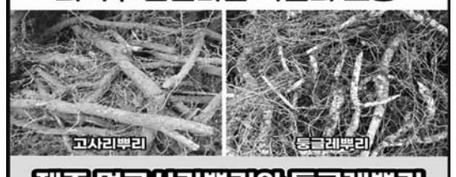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창원(향년 8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부인 김정열
아들 양철웅
도영
호성
명하
정희
며느리 이문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신마음 작물과 소통


제주 먹고사리뿌리와 둥글레뿌리
텃밭 전.밭.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제주약용작물 품종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승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